

12월 모임

제자의 삶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씀읽기 롬 8: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지나고 보니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크게 죄책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관찰

1.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
2.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연구

1. 죄책감(정죄함)은 왜 우리를 두렵게 만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 하실까요?
(창3:6-8, 히 10:22)
2.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는 죄책감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죄책감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방향으로
이끄나요? (롬 8:1-2, 고후 7:10-11)

적용과 나눔

1.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일, 아니면 더 멀어지게 되었던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2. 연약함과 넘어짐이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다시 일어났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1. 죄책감 속에 숨지 않고 생명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3. 인랜드 교회 환우들이 병중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Martin J. Nystrom & Rhonda Gunter Seesi

Under the blood

예수전도단 역

D/E A Dadd² E⁴ E A Dadd² E⁴ E

유월절 어린 양 - 외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

C F/C C G/C F/A Dm E⁴ E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이요 - -

A Dadd² E⁴ E A Dadd² E⁴ E

원수가 날 정죄할 때 - 도 난 외롭게 설 수 있네 -

F[#]m C[#]/E D A³/C# B⁷ D/E E A D/E E

난 더 이상 정죄할 없네 난 주보혈아 - 래있네 -

A A/C# D D/E E A F[#]7 B⁷ E⁴ E

난 주보혈아 - 래있네 -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

F[#]m C[#] D A/C# B⁷ B⁷/A G⁷ D/E E/G#

하나님의 긍휼을 날 거룩케 하시었네 -

A A/C# D D/E E A F[#]7 B⁷ E⁴ E

난 주보혈아 - 래있네 - 난 원수의 어찌한 공격에도

F[#]m C[#] D A/C# B⁷ D/E E A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아 - 래있네 - -

